

교복착용 여부와 청소년 비행행동간의 관계성 연구

이 인 자

건국대학교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Uniform and Juvenile Delinquency

In Ja Lee, Ph.D.

Konkuk University
(1991. 12. 2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at whether the juvenile delinquency could be decreased by the revival of school uniform for the high school students.

For this purpose, the difference and frequency of juvenile delinquency between uniformed students and none-uniformed students were surveyed. In addition, the relation among the students, social classes, receiving attitude for the sub-culture, with juvenile delinquency were also surveyed.

For this study, 728 high school students were studied with a questionnaire. They were 328 uniformed students from 6 schools and 400 none-uniformed students from other 6 schools.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1. The order of juvenile delinquency is resistance to their parents and teachers, cunning in examination, drinking, watching shameful video tapes, possession of dirty books and pictures, gambling, entering to tea rooms, billiard rooms, the prohibited cinema houses and drinking houses, and smoking.

The students' delinquency was chiefly misdeed against the public order and social position and most of them were without any victims. And there were no misdeed such as drug addiction, robbery and bodily harm.

2. The difference of juvenile delinquency between uniformed and non-uniformed schools was not found.

3. More misdeed were occurred when they were without uniform; especially in cases of entering to shameful video shops, drinking houses, tea rooms and billiard rooms.

4. The logical propriety that the juvenile delinquency would be decreased by putting on uniform to all students is scarce, because all misdeed were occurred when they were without

uniform after school. Uniform were worn only when they go to school.

5. A negative effect between student's affection toward their parents and schools, and juvenile delinquency was found. Much they love their parents and schools, less misdeed occurred.

6. Positive effect between sub-culture and juvenile delinquency was found. The friendship with delinquent students gives a great influence to juvenile delinquency.

서 론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 교복은 일제시대부터 입어 오던 것을 6.25이후 몇차례 디자인상으로 보완하기는 했으나 1983년 교복 자율화 정책이 생기기 직전까지 모든 학교에서 입고 있었다.

1983년 문교부(현재 교육부)에서 교복 자율화 정책이 발표되자 대부분의 학교는 학생들의 개성표현과 활동성의 이유를 들어 자유복을 환영했고 특히 교복이라는 획일성이 일제교육의 잔재이므로 민주주의 시민의식을 교육하는데 방해요인이 된다는 측면에서 교복 폐지론이 대두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몇몇의 특수학교를 제외하고는 자유복을 선택했다. 그러나 교복자율화 정책이 실시된 지 3년도 채 되지 않아 학생지도의 어려움, 비행청소년의 증가, 계층간의 위화감, 경제적 이유 등을 들어 중앙 고등학교에서 다시 교복을 채택하면서부터 중·고등학교 학생지도 차원에서 어려움을 겪는 많은 학교들이 교장 및 교사들의 호응을 얻어 다시 교복을 채택하기 시작했고 1991년 9월 현재 상당수의 학교에서 교복착용으로 환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복을 착용하는 이유중에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이 자유복을 입으면 학생지도의 어려움이 많으며 학생 스스로 통제가 되지 않아 비행을 저지룰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견해이다.

그러면 과연 교복착용여부가 청소년 비행행동의 변수로 작용하는가?

연구자는 이와같은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교복과 청소년 비행간의 관계를 좀 더 심도있게 다루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그간 교복착용에 관한 내용은 여러각도에서 문제로 제기되어 T.V.를 통한 공개토론도 있었고 중·고등학교에서는 학교차원에서 교복착용 찬·반대에 관한 내용의 설문지를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돌려 의견을 종합한 후 점차적으로 교복으로 환원하고 있는 추세이다. (1990년 교육부 통계, 43.5%). 그러나 우리의 의복행동은 개인

의 심리적 여러 요인과 환경적 상황을 대변해 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특히 청소년기에 있어서 의복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하는 선행연구 결과를 미루어 볼때에 (Gurel(1974), Morganosky 등(1981), Kaiser (1985)) 교복 문제는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더구나 자라나는 젊은이들이 민주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성장하기를 바라는 현재의 정치, 사회, 문화, 교육적 측면에서 고려할 때 교복의 부활을 심도있는 연구가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 문제의 제기는 매우 의의가 있으며 연구결과는 교복을 입은 학교나 앞으로 교복착용 여부를 선택해야 할 많은 학교에 지침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연구 문제의 도출

1. 비행의 개념과 비행의 원인

비행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측면과 법적인 측면의 두개의 차원으로 설명된다. 사회적 차원의 개념은 기존의 사회적 규범이나 질서 규칙의 위반이나 타인에게 부정적으로 반응되어진 행위를 말하며 법적차원에서의 개념은 범죄라는 용어로 더 많이 사용되며 법률에 저촉되는 모든 행위를 뜻한다(곽대경, 1988). 그러나 비행이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에는 성인의 범죄와는 구별하여 소년 비행으로 국한시키는 것이 보통이다(Philipson, 1971; 양춘 1984) 청소년 비행의 원인에 대해서 가장 일반화된 것은 사회통제이론이다. 즉, 사회적 통제의 약화가 직접적으로 청소년 비행행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는 이론이다(Frazier, 1976).

본 연구는 이와같은 사회적 통제이론에 근거해서 교복이라고 하는 통제가 비행행동 빈도와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고자 하므로 사회적 통제이론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사회적 통제이론과 애착

사회적 통제이론은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연구되어 왔는데(Reiss, 1951, Sukes등, 1957) 오늘날에는 Hirschi (1969)의 이론이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는 사람들과 관습적인 사회사의 유대를 강조하고 개인과 사회적 유대가 약화될 때 규범을 어기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는 개인이 사회적으로 갖게되는 유대를 애착, 수용, 참여, 신념의 4개의 차원으로 보고 이러한 유대들이 강할수록 비행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높은 수준의 애착, 수용, 참여, 신념이라는 사회적 유대는 낮은 수준의 비행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애착이 가장 중요한 차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다른 학자들도 부모에 대한 애착만을 다루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애착의 차원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의 애착 이론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애착(attachment)

애착이란 의미있는 他者에 대한 감정적 유대를 뜻하는 것으로 애착의 대상은 부모와 학교 그리고 친구집단을 들고 있다.

부모에 대한 애착을 살펴보면 가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가족구성원간의 애정에 바탕을 둔 유대이므로 가족의 응집력, 부모와 자녀관계의 질등이 청소년 비행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이 가능하다. 즉 부모는 자녀들에게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행동과 그렇지 않은 행동을 교육하는 입장이므로 부모는 사회화과정의 역할 담당자로서 자녀와 부모사이의 유대가 중요시 되고 있다(Toby, 1974). Hirschi (1969)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에 대한 애착이 강한 청소년들은 비행행위를 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여 심리적으로 부모와 함께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비행을 덜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음은 학교에 대한 애착이다.

오늘날 학교는 청소년의 중심적인 사회환경이 되었다(Elliott, 1972). 청소년들은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낼 뿐만 아니라 학교는 교육을 통하여 청소년의 가치관, 신념, 자아개념 및 사회관 등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다양한 경쟁은 청소년의 공적인 정체감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에 대한 애착이 강한 청소년은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적다고 보는 입장이다. 적어도 10년이나 그 이상의 기간동안 학교

는 사회에 의해 제공된 유일한 정규적인 장소인 것이다(Coleman, 197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에 대한 애착과 학교에 대한 애착이 비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보고 청소년들이 비행을 저지를 사항에 부딪혔을때 부모에 대한 애착이나 학교에 대한 애착과 친구와의 애착에 근거한 비행 하위문화의 수용에 어떻게 작용하는 지를 알고자 하며 교복과 자유복이 비행행동에 변수로 작용하는 지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3. 교복착용 및 교복자율화 정책의 고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교복을 입은 것은 1886년 8월 이화학당이 문을 열면서 스카랜톤 당장이 학생들에게 아래 위 다홍색 옷을 입도록 한 것에서 비롯, 1900년대에서는 옥색치마에 흰저고리를 입도록 했으며(정충량, 1967) 1907년 숙명학당에서는 자주빛 원피스와 모자를 쓰게 했고 1910년 한성여고(현 경기여고 전신)에서 흰저고리와 검은색 치마를 교복으로 착용한 이래 1983년 문교부에서 교복자율화 정책이 발표되기 전까지 70여년간을 중·고등학교에서 교복을 착용해 왔다.

교복은 일제의 잔재이며 획일적이고 개성 및 창의성을 존중하지 못한다는 교육계의 여론에 따라 문교부에서는 1983년 3월 1일자로 교복자율화 정책을 발표하여 83년 3월 1일부터 특수학교를 제외하고는 전국의 중·고생이 모두 자유복을 착용하였다. 학생들은 자유복을 입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해방감을 맛보며 즐거워 했고 학교에서는 머리모양을 학생답게 통제하거나 자유복의 디자인이나 색상등을 어느정도 통제함으로써 학생들의 의생활 지도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나 1년도 채 되지않아 자유복은 학생의 신분에서 어긋나는 양상으로 착용되었고, 거기에 의류산업체에서는 청소년 시장을 표적으로 값비싸고 사치스러운 옷을 만들어 중·고생을 대상으로 유명상표가 나오기 시작했으며 일부계층에서는 여러벌의 옷을 자녀에게 사입혀 일주일에 몇번씩 갈아입힘으로써 사춘기의 청소년들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되어 갔다. 또, 한편으로는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자유복을 입고 미성년 출입금지 장소에 드나들게 되어 교사들은 학생지도 차원에서 대단히 어렵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일부 중·고등학교에서 다시 교복을 입혀야겠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마침내 중앙고등학교에서 제

일 먼저 교복으로 환원했고 몇몇 학교가 교복을 입히기 시작하자 문교부에서는 86년 9월 1일자로 교장의 허락 하에 교복을 힘써도 좋다는 지시가 각급학교로 전달되게 되었다. 문교부가 교복으로 환원해도 좋다는 지시를 하게 된 이유는 첫째 자유복 착용에 따른 유명메이커의 등장으로 학생들의 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장하며, 둘째 학생들의 신체적 발달로 자유복을 착용한 학생들을 학교 밖에서 볼때 성인같이 생활지도할 수 없으며 셋째 미성년자를 사회적인 사고(교통사고,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시달하였다. 이와같은 정책이 시달되자 각급학교에서는 학교 차원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들에게 설문지를 돌려 학교장의 재량으로 다시 교복을 입기 시작했으며 교복의 디자인, 색상등을 연구하여 중전의 교복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부활되었고 상당수의 학교에서 교복이 좋게 평가 받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 학생생활 담당자의 연구에 의하면 90년 현재까지 교복착용 상황은 <표 1>과 같다(전국통계).

<표 1> 교복착용 현황 (N : 학교수)

	86년	87년	88년	89년	90년 9월
중학교	7 (0.3%)	41 (1.7%)	85 (3.5%)	206 (8.4%)	853/2498 (38.5%)
고등학교	33 (2.0%)	144 (8.9%)	232 (14%)	325 (19.4%)	856/1702 (50.9%)

중고평균 43.5%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복 착용 추세는 고등학교에 더 많으며 이는 특히 생활지도 차원에서 교사들에 의해 호응을 받고 있는것 같다.

91년 국정감사 결과(동아일보, 9.18일자)에 의하면 91년 2학기 현재 서울시내에서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는 고등학교 184개교(77%), 중학교 163개교(48%)이다.

4. 연구 문제

위의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의 설정이 가능했다.

- 1) 고등학생의 비행유형과 순위를 알아본다.
- 2) 부모에 대한 애착, 학교에 대한 애착과 비행행동간의 관계를 알아본다.
- 3) 비행수용 태도의 비행행동간의 관계를 알아본다.
- 4)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와 자유복을 착용하는 학교

간에 비행행동의 차이를 밝힌다.

5) 비행행동시 의도적으로 착용하는 의복(교복, 자유복)의 차이를 밝힌다.

6) 부가적으로 사회계층과 부모에 대한 애착 및 비행행동간의 관계를 알아본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서울시내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중에서 지역적으로 비교적 고르게 선정하기 위하여 중구, 강남, 강북, 강서, 강동에서 교복을 입는 6개교 400명, 자유복을 입는 학교 6개교 420명을 임의 추출하여 1991년 7월 1일부터 7월 15일 사이에 담임 선생님을 통하여 배부하고 다음날 수합하였다. 그중에서 응답이 불충분한 것을 제외하고 본 연구의 대상이 된 수는 총 728명으로 구성비율은 <표 2>와 같다.

<표 2> 표집대상

	교 복	N	(지역)	자유복	N	(지역)
남	H고	51	(강동)	K고	98	(성동)
	Y고	42	(강동)	C고	51	(노원)
	S공고	60	(강서)	S공고	50	(강서)
여	S여고	44	(은평)	H여고	52	(성북)
	D여고	97	(서포)	KS여고	94	(중구)
	K여고	54	(강남)	S여고	55	(강남)
계		328			400	

2. 측정도구

본 연구를 위한 측정 도구는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질문지를 크게 3 part로 나누어 part I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을 알아보기 위한 인구통계학적 내용이고 part II는 부모와 학교에 대한 애착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부모에 대한 애착을 묻는 9개의 문항과 학교에 대한 애착을 묻는 문항 8개로 구성되었다.

본 질문지 문항은 Hirschi (1969)가 연구한 문항을 꼭대경(1988)이 다소 수정하여 사용한 총 17개 문항으로 부모에 대한 애착은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감독,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 감정적 친밀도의 3가지 내용을 알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에 대한 애착은 일반적인 학교에 대한 태도와 동일시, 학교에서의 성공, 선생님과의 감정적 친밀도를 알 수 있는 문항으로 애착의 측정은 5단계 평점법으로 아주 그렇다에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 5점을 부과하였다. 그러므로 점수가 낮을수록 해당사항의 애착이 강함을 나타낸다.

part III은 비행하위문화의 수용을 묻는 문항으로 Cohen이 제시한 비공리성, 악의성, 부정성, 단기쾌락주의라는 비행친구 집단의 비행하위문화를 청소년이 어느정도 수용하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광대경(1988)이 사용한 11개 문항을 본조사에서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5단계 평점법으로 아주 그렇다에 1점 전혀 아니다에 5점을 부과하였다. 그러므로 점수가 낮을수록 비행을 수용하고 있음을 뜻한다.

Part IV는 비행의 내용을 묻는 문항으로 Clinard와 Quinney (1973)의 범죄유형 분류와 Sanders (1981)가 청소년 비행유형을 6가지 범주로 구분한것에 준하여 노성형(1986)이 사용한 33개의 질문 항목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질문은 지난 고등학교시절 1년 동안에 해당 비행을 저지른 경험이 있는데로 적으라고 하고 이때 교복, 자유복 중 어떤 옷을 입는것이 비행행위를 용이하게 했는지를 응답토록하였다.

비행유형별 질문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신뢰도(크롬바의 α 계수)를 괄호속에 제시하였다.

(1) 대인 비행(α : .50)

패셔음, 흥기소지, 폭력씨클 가입, 강간, 폭행, 금품 탈취, 흥기로 타인에게 상처입히기, 강도, 공갈이나 협박.

(2) 재산 비행(α = .79).

남의 집에 들어가 물건훔치기, 만원 미만의 절도, 만원 이상의 절도, 등록금을 다른곳에 쓰기, 공공기물 파괴, 사기

(3) 약물사용 비행(α = .85)

환각제나 분드 사용, 대마초 흡연

(4) 공공질서 비행(α = .67)

컨닝, 부모나 선생님에 대한 반항, 무단결석, 돈내기 도박, 가출, 음주, 흡연

(5) 피해자가없는 비행(α = .68)

이성과의 혼숙, 이성과의 성관계, 음화 및 음란서적

소지, 음란비디오 관람, 사창가 출입

(6) 지위 비행(α = .87)

디스크장 출입, 술집 출입, 관람불가극장 출입, 다방이나 당구장 출입

3.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건국대학교 응용통계학과의 전산실 SPSS PC+를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비행유형에 대한 결과는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고 비행유형과 애착·비행하위문화와의 관계는 Pearson의 적률 상관관계로 분석하였으며 이들 3가지 변인과 비행행위간의 설명력을 알기 위하여 Multiple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또 비행행위시 교복 착용여부는 두집단간의 차의 유의성을 고찰하기 위하여 t-test로 분석했으며 사회계층과 부모에 대한 애착 및 비행행동간의 관계는 ANOVA로 분석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항목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3>와 같다.

교복착용학교의 학생 328명(45.4%) 자유복 착용학교의 응답자 400명(54.6%)이며, 남학생 353명(48.6%) 여학생 375명(51.4%)으로 표집추출에서는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었다고 생각된다. 다만, 학교계열에서 인문계가 617명(84.9%), 실업계가 107명(14.9%)으로 실업계 고교생을 많이 표집대상으로 못한 점이 다소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가족사항은 부모 생존이 92.9%, 가정의 경제적 책임이 아버지인 경우가 84.9%, 기타 월수입, 주택형태, 가옥평수, 형제수 등을 볼때 서울 시민의 전형적인 수준이라고 생각되며 가정의 직업과 학력은 사회계층 구분을 위해 Hollingshead (1965)의 사회 계층 2요인 지표항목을 제시했으며 결과 이들의 사회 계층은 <표 4>와 같다.

여기에 나타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상류층 11.1%, 중류층이 42.7%로 중류층 이상이 54%를 차지하며 하상이 35.4%로서 비교적 모든 계층에서 고르게 표집된 것을 알 수 있다.

〈표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빈 도	Percent
교복착용여부	교 복	328	45.4
	자 유 복	400	54.6
성 별	남	353	48.6
	여	375	51.4
학교계열	인 문 계	618	84.9
	실 업 계	110	14.9
가족사항	① 부모생존	627	92.9
	② 부만생존	10	1.4
	③ 모만생존	36	5.1
	④ 양친없음	4	0.6
	무 응 답	—	—
	경 제 적 임	① 아버지	608
	② 어머니	98	13.9
	③ 기 타	14	1.1
	무 응 답	—	—
가 장 의 력	① 중학교 이하	62	8.5
	② 중졸	224	30.8
	③ 고교중퇴	16	2.2
	④ 고졸	275	37.8
	⑤ 전문대졸	22	3.0
	⑥ 대졸	72	9.9
	⑦ 대학원 이상	50	6.9
	무 응 답	6	0.8
형제수	① 없 음	28	3.9
	② 1~2명	455	62.6
	③ 3~4명	196	27.1
	④ 5명 이상	43	5.9
	무 응 답	5	0.7
가 장 의 직	① 비속련직	90	12.4
	② 반속련직	114	15.7
	③ 속 련 직	130	17.9
	④ 판 매 직	183	25.2
	⑤ 사 무 직	130	17.9
	⑥ 관 리 직	37	5.1
	⑦ 전 문 직	29	4.0
	무 응 답	14	1.9
월 수 입	① 20만원 이하	40	5.5
	② 20~50만원	58	8.0
	③ 50~100만원	281	38.7
	④ 100~200만원	264	36.3
	⑤ 200~300만원	47	6.5
	⑥ 300만원 이상	12	1.7

	무 응 답	25	3.4
주거형태	① 자 가	564	77.6
	② 셋 집	137	18.8
	③ 회사사택	2	0.3
	④ 무상거주	18	1.1
	⑤ 기 타	10	1.4
	무 응 답	6	0.8
가옥평수	① 10평 미만	90	12.4
	② 10~19평	76	10.5
	③ 20~29평	187	25.7
	④ 30~39평	215	29.6
	⑤ 40~49평	131	18.0
	⑥ 50평 이상	11	1.5
	무 응 답	17	2.3

〈표 4〉 사회 계층

사회계층	빈 도	Percent
상	81	11.1
중 상	100	13.8
중 하	210	28.9
하 상	257	35.4
하 하	64	8.8
무 응 답	15	2.1

2. 조사 대상자의 비행유형과 순위

조사 대상자의 비행유형별 비행자수와 평균비행수는 〈표 5-1〉과 같다.

비행유형별 비행수에 따르면 공공질서에 대한 비행이

〈표 5-1〉 비행유형별 비행자 수

	비행자 수 N(%)	비행을 저지르지 않은 수 N(%)	M
대인 비행	138(19.0)	590(81.0)	3.755
재산 비행	150(20.6)	578(79.4)	2.299
약물 사용	34(4.7)	694(95.3)	.120
공공 질서	641(88.0)	87(12.0)	37.760
피해자 없는 비행	353(48.5)	375(51.5)	10.763
지위 비행	314(43.1)	414(56.9)	12.339

88%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피해가 없는 비행 48.5%, 지위비행 43.1%, 재산비행 20.6%, 대인비행 19%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약물사용비행은 거의 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비행을 한 학생이 지난 1년 동안에 저지른 비행의 평균을 보면 공공질서 비행이 37.76회나 되며 지위 비행이 12.33회, 피해자 없는 비행이 10.76회로서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을 다시 비행내용별로 정리하면 <표 5-2>와 같다.

고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비행 10가지를 순위별로 보면 부모나 선생님께 반항이 70%로 가장 많고 다음이 컨닝(57.4%), 음주(48.6%)등 주로 공공질서 비행이 많으며 다음이 음란 비디오 관람(38.6%), 음화 및 음란서적소지(33.5%)등 피해가 없는 비행이며 다방·

<표 5-2> 비행 내용별 비행사항

비행유형	문항	(순 위)	안했다(%)	했다(%)	무응답(%)
대인 비행	6	패싸움	655(90.0)	69(9.5)	4(0.5)
	8	흥기 소지	673(92.4)	51(7.0)	4(0.5)
	9	폭력씨클 가입	712(97.8)	11(1.5)	5(0.7)
	10	강 간	713(97.9)	11(1.5)	4(0.5)
	11	폭 행	672(92.3)	52(7.1)	4(0.5)
	12	금품 탈취	681(93.5)	42(5.8)	5(0.7)
	13		695(95.5)	27(3.7)	6(0.8)
	18	강 도	714(98.1)	7(1.0)	7(1.0)
	19	공갈이나 협박	697(95.7)	23(3.2)	8(1.1)
재산 비행	3	등록금 다른 곳에 쓰기	704(96.7)	20(2.7)	4(0.5)
	7	남의 집에 들어가 물건 훔치기	694(95.3)	30(4.1)	4(0.5)
	14	만원미만의 절도	688(94.5)	34(4.7)	6(0.8)
	15	만원이상의 절도	708(97.3)	13(1.8)	7(1.0)
	20	공공기물 파괴 (10)	620(85.2)	102(14.2)	6(0.8)
	21	사 기	703(96.6)	19(2.6)	6(0.8)
약물 비행	25	환각제나 본드사용	700(96.2)	18(2.5)	11(1.4)
	26	대마초 흡연	705(96.8)	1.2)	12(1.6)
공공질서 비행	1	컨 닝 (2)	301(41.3)	418(57.4)	9(1.2)
	2	부모나 선생님에 반항 (1)	209(28.7)	510(70.1)	9(1.2)
	4	무단 결석	688(94.5)	36(4.9)	4(0.5)
	5	돈내기 도박 (6)	518(71.2)	204(28.0)	6(0.8)
	22	가 출	674(92.6)	48(6.6)	8(1.1)
	32	음 주 (3)	357(49.0)	354(48.6)	17(2.3)
	33	흡 연	556(76.4)	151(20.7)	21(2.9)
피해자 없는 비행	16	이성과의 성 관계	685(94.1)	35(4.8)	8(1.1)
	17	이성과의 혼숙	681(93.5)	40(5.5)	7(1.0)
	23	음화 및 음란서적 소지 (5)	473(65.0)	244(33.5)	11(1.5)
	24	음란 비디오 관람 (4)	437(60.0)	281(38.6)	10(1.4)
	27	사창가 출입	644(88.5)	34(4.7)	—
지위 비행	28	디스코장 출입	596(81.9)	88(12.1)	—
	29	술집 출입 (9)	524(72.0)	162(22.3)	42(5.8)
	30	관람불가극장 출입 (8)	502(69.0)	179(24.6)	47(6.5)
	31	다방·당구장 출입 (7)	492(67.6)	181(26.2)	45(6.2)

당구장 출입(26.2%), 관람불가 극장출입(24.6%), 술집출입(22.3%)등으로 나타났다.

이중 지위비행은 성인이 되면 문제가 없는 행위라고 생각할 때 현재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매우 건강하게 자라고 있으며 국소수의 학생만이 대인비행, 재산비행, 약물비행등을 저지른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소년 선도 차원에서 범위를 좁혀 대상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3. 비행유형과 부모에 대한 애착, 학교에 대한 애착, 비행 수용도 간의 관계

청소년들의 비행이 교복이라는 사회통제적인 규제에 앞서 애착이나 비행하위 문화의 수용태도와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 상관관계 계를 산출할 것을 <표 6-1>에 제시하였다.

<표 6-1> 비행유형과 부모·학교에 대한 애착 및 비행수용도 간의 상관관계(r)

비행유형	부모에 대한 애착	학교에 대한 애착	비행수용도
대인 비행	-0.0993**	-0.1200**	0.1923***
재산 비행	-0.0224	-0.0683	0.1550***
약물 비행	0.0058	-0.0498	0.0073
공공질서 비행	-0.1230**	-0.1210**	0.2747***
피해 없는 비행	-0.1192**	-0.0851	0.2067***
지위 비행	-0.0835	-0.1080**	0.2051***

p<0.01 *p<0.001

여기에 나타난 것을 보면 애착과 비행행위 간에는 부정적인 상관을, 비행행위에 대한 수용과 비행행위 간에는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즉 부모 및 학교에 대한 애착이 강할수록 대인비행, 공공질서비행, 피해자 없는 비행을 덜 저지른다. 이는 부모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은 이탈행위를 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면 심리적으로 부모와 함께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비행을 덜 저지르며, 학교에 대한 애착의 약화가 직접적으로 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 Hirschi (1969)의 선행 연구와 청소년이 비행친구 집단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그들의 공통관계가 이탈행위를 지지하는 신념과 가치로 재조직화되어 그러한 비행에 대한 수용태도가 비행을

일으키게 된다.

그러나 비행행동에 대해 수용을 많이 할수록 청소년이 범할 수 있는 모든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되므로 청소년 비행행동은 그들 하위문화의 접촉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3개 변인간의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Multiple Regression을 한 결과를 <표 6-2>에 제시하였다.

<표 6-2> 애착 및 비행 수용도와 비행 행동간의 회귀분석 결과

비행유형		부모에 대한 애착	학교에 대한 애착	비행수용도
대인 비행	R ²	0.00841*	0.01183**	0.03185***
	β	0.0917	0.10876	0.17848
재산 비행	R ²	0.00034	0.00406	0.02072***
	β	0.01832	0.06374	0.14395
약물 사용	R ²	0.0002	0.00400	0.00326
	β		0.06322	0.05707
공공질서 비행	R ²	0.01726***	0.01167**	0.06860***
	β	0.13136	0.10803	0.26191
피해가 없는 비행	R ²	0.0176***	0.00673*	0.04391***
	β	0.13272	0.08202	0.20956
지위 비행	R ²	0.00575*	0.00974*	0.03574***
	β	0.07582	0.09868	0.18904

*p<0.5 **p<0.01 ***p<0.001

<표 6-2>에 나타난 것과 같이 모든 비행에서 비행수용이 가장 크게 작용하여 부모 및 학교에 대한 애착과 비행행동간에는 비행유형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대인비행과 지위비행은 학교에 대한 애착이 좀 더 영향을 미치며 공공질서 비행 및 피해가 없는 비행은 부모와의 애착이 좀 더 작용을 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에 청소년들은 친구집단의 영향이 가장 크게 작용하므로 좋은 친구를 사귀도록 적극 지도해야 하며 부모와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애착을 느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청소년 비행행위를 예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4. 현재 교복을 착용하고 있는 학교와 자유복을 착용하고 있는 학교 간의 차이

현재 교복을 착용하고 있는 학교와 자유복을 착용하

고 있는 학교 간에 비행행위의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하여 학생들이 비행별로 「했다」「안했다」고 한 빈도의 차이를 χ^2 -test로 검증한 결과는 <표 7-1>로 제시했으며 비행을 저지른 학생들이 계속해서 비행을 저지른 횟수의 평균으로 차이를 검증한 t-test 결과는 <표 7-2>에 제시했다(무응답은 뺀으므로 항목별 응답수는 다르게 나타났음).

<표 7-1> 현재 교복착용 여부와 비행유형별 비행행위 간의 관계

비행유형	집단		자 유 복		χ^2	P
	No	Yes	No	Yes		
대인 비행	275	52	314	83	11.14*	0.0038
재산 비행	268	59	309	88	9.13*	0.0104
약물 비행	315	12	328	19	45.18***	0.0000
공공 질서	44	283	43	397	1.71	0.4232
피해없는 비행	179	148	195	202	3.40	0.1826
지위 비행	211	116	202	195	15.27***	0.0005

*p<0.01 **p<0.001

<표 7-2> 비행빈도와 교복착용 여부간의 관계 (t-test)

비행유형	집단	교 복		자 유 복		t
		N	M	N	M	
대인 비행		326	3.80	392	3.76	0.98
재산 비행		325	1.82	393	2.69	0.61
약물 비행		322	0.03	393	0.19	0.05
공공 질서		316	36.16	377	39.21	0.63
피해없는 비행		304	9.58	365	37.00	0.49
지위 비행		302	15.35	364	9.87	0.20

여기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대인비행, 재산비행, 약물 비행, 지위비행에 있어서는 자유복을 착용하는 경우에 많이 일어나고 있으나 학생들이 많이 저지르고 있는 공공질서 파괴나 피해없는 비행은 교복·자유복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비행을 저지른 학생들이 계속해서 비행행위를 한 평균 차이로 t-test한 결과를 보면 교복을 입은 학교나 자유복을 입은 학교간에는 전혀 차이가 없었다. 이는 학생들이 주로 많이 하는 비행행위가 공공질서 비행이나 대인비행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하교후에는 항상 자유복을 입고 외출하기 때문에 학

교에서 교복을 입고 입지 않는 것에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5. 비행행동시의 교복, 자유복 착용 경험

<표 8>은 지난 고등학교 시절동안에 비행을 저지른 경험이 있는가를 묻고, 그때 교복, 자유복 중 어느 것을 입는 것이 비행행동이 더 쉽게 일어난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결과이다.

이것은 비행을 저지른 당시 교복 또는 자유복을 입은 것을 응답하도록 했으므로 비행유형별로 묶을 수가 없었다. 즉 같은 공공질서 비행이라고 하더라도 컨닝을 할 때는 교복을 입었다고 응답하고, 돈내기 도박은 자유복이라고 응답하는 것과 같은 결과이므로 유형별로 묶되 집단간에 유의수준은 χ^2 -test로 문항별로 분석하였다.

이들이 많이 저지른 비행의 순위 10가지를 보면 부모나 선생님에 대한 반항, 컨닝, 음주, 돈내기 도박 등의 공공질서 비행이 가장 많고 다음이 음란 비디오 관람이나 음란서적 소지 등의 피해자 없는 비행이며 세번째로 많이 저지르는 비행이 다방·당구장, 관람불가 극장 출입, 술집출입 등의 지위 비행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비행 행위시 교복보다는 자유복을 입은 수가 많은 것은 확실하나 비행을 했다고 응답한 학생이나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양쪽에서 자유복을 입은 학생수가 많았으며 어느 경우나 관계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수가 훨씬 많은 것을 볼 때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등·하교시를 제외하고는 자유복을 입고 행동하므로 대부분의 비행 행동시 학교에서 교복을 입느냐 자유복을 입느냐 하는 것은 큰 변수로 작용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왕에 교복으로 환원하는 많은 학교에서 교복을 입으면 학생들의 비행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와는 어긋나는 결과이다.

이상의 결과로 서울시내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극단적인 대인 비행, 재산 비행, 약물 비행 등의 행동은 거의 하지 않는다고 보여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하나 이들이 공공질서나 지위 비행, 피해자가 없는 비행은 상당히 저지르고 있으며 이때에는 교복을 입은 학생들도 자유복으로 갈아입고 그와같은 행동이 이루어 진다고 해석된다.

6. 사회계층과 부모에 대한 애착 및 비행행동간의 관계

다음은 부가적으로 사회계층이 부모에 대한 애착이나

〈표 8〉 비행 행동시의 교복·자유복 착용 상황

비행유형	순위	안 했 다				했 다				x ² 값	
		교복	자유복	관계없다	계	교복	자유복	관계없다	계		
대인 비행	13	패싸움	36	220	399	655	13	34	22	69	33.14***
	15	흥기 소지	28	233	12	673	10	32	9	51	51.42***
	30	폭력씨클 가입	31	246	435	712	2	5	4	11	8.742
	30	강 간	31	245	437	713	1	7	3	11	10.52
	14	폭 행	25	235	412	672	9	30	13	52	41.25***
	17	금품 탈취	26	232	423	681	7	30	5	42	60.55***
	24	흥기로 타인에게 상처입히기	30	235	430	695	4	15	8	27	16.33*
	33	강 도	32	244	438	714	·	5	2	7	6.76
	25	공갈이나 협박	29	235	433	697	3	13	7	23	13.40***
재산 비행	26	등록금 다른 곳에 쓰기	45	225	434	704	5	5	10	20	13.04
	23	남의 집에 들어가 물건 훔치기	25	248	421	694	5	11	14	30	13.29***
	21	만원 미만의 절도	32	234	422	688	4	18	12	34	21.44**
	29	만원 이상의 절도	31	242	435	708	3	7	3	13	16.08*
	11	공공기물 파괴	25	208	387	620	9	62	31	102	41.84***
	27	사 기	28	243	432	703	2	9	8	19	8.63
약물사용비	28	환각제나 본드사용	24	242	434	700	3	10	5	18	1115.44* 10.23
	30	대마초 흡연	25	241	439	705	2	5	4	11	
공공질서비	2	컨 닝	37	72	192	301	89	166	163	418	46.00***
	1	부모나 선생님에 반항	13	69	127	209	49	236	225	510	18.03*
	19	무단 결석	37	230	421	688	8	14	14	36	22.21**
	6	돈내기 도박	21	169	328	518	31	112	61	204	79.47***
	16	가 출	26	231	417	674	2	32	14	48	26.21**
	3	음주	15	123	219	357	21	117	156	354	27.31**
	10	흡 연	21	172	363	556	14	87	50	151	56.20***
피해자가 없는 비행	20	이성과의 성관계	24	239	422	685	5	21	9	35	33.47***
	18	이성과의 혼숙	22	242	417	681	7	22	11	40	32.71***
	5	음화 및 음란서적 소지	24	149	300	473	18	147	79	244	63.96***
	4	음란 비디오 관람	15	145	277	437	19	158	104	281	50.98***
	21	사창가 출입	24	219	401	644	2	20	12	34	22.87***
지위 비행	12	디스코장 출입	19	209	368	596	6	52	30	88	36.58***
	9	술집 출입	16	186	322	524	8	101	53	162	54.96***
	8	관람불가극장 출입	14	177	311	502	11	106	62	179	53.17***
	7	다방·당구장 출입	15	174	303	492	14	114	63	191	65.41***

*빈도수의 차이가 나는 것은 무응답이 항목에 따라 다르게 나왔기 때문이다.

비행행동과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본 결과이다.

먼저 사회계층과 부모에 대한 애착간의 관계를 one way ANOVA로 분석한 결과는 <표 9-1>에 지시된 바와 같이 p<0.001 수준에서 매우 의미있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즉, 사회계층이 높을 수록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애착이 많으며 특히 중상계층에서 부모에 대한 애착이 가장 많고 다음이 상이며 하위계층으로 내려갈수록 애착이 적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욕구사항을 부모들이 해결해 줄 수 있어야만 부모에 더 애착을 느낀다고 볼 수 있어 부모의 어깨가 무거워지는

<표 9-1> 사회계층과 부모에 대한 애착

Group	평 균	표준편차	F 값
상	23.59	6.32	8.65***
중 상	23.33	5.87	
중 하	24.94	5.80	
하 상	25.90	5.46	
하 하	27.85	5.91	

***p<0.0001

<표 9-2> 비행행동과 사회계층과의 관계

계층 N.M 비행유형	상	중 상	중 하	하의 상	하의 하	F
	Group 1	Group 2	Group 3	Group 4	Group 5	
대인비행	81 1.86	96 4.52	210 7.18	257 1.38	63 4.06	0.09
재산비행	81 0.67	98 0.28	210 3.82	257 1.56	62 5.87	0.44
약물사용	80 0.27	100 0.06	206 0.16	255 0.05	63 0.127	0.66
공공질서	78 25.71	95 39.68	202 42.21	249 37.16	58 43.58	0.65
피해가 없는 비행	76 7.56	97 11.28	196 13.52	233 9.65	57 11.01	0.84
지위비행	75 6.77	99 9.70	193 14.81	234 11.80	54 20.85	0.59

결과로 풀이된다.

사회계층과 비행간의 관계를 변량분석한 결과는 표 <9-2>와 같다. 이 결과 p<0.05 수준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은 하나도 없다. 즉 사회계층과 비행과는 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사회계층과 비행행동간에는 관계가 없다고 한 C.R. Tittle (1978), Johnson (1980)의 선행연구와 노성형(1986, p. 100)의 사회계층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에서 “사회계층은 청소년 비행을 설명하는 훌륭한 요인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그의 연구 결과를 지지해 주는 결과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고등학교의 교복 부활 이유중에 학생들

의 생활지도의 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청소년 비행이 과연 교복을 입힘으로써 줄어들 수 있겠느냐 하는데 연구 목적을 두고 현재 교복·자유복을 입고 있는 학교 학생들의 비행의 차이를 밝히며 비행행위시 교복·자유복 중 어느 것을 입고 더 많이 행동이 일어났는지를 알아보는 데 있다.

또 사회 통제 이론에 근거하여 청소년 비행의 원인으로 부모와 학교에 대한 애착과 청소년 비행 하위문화의 수용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아 보며 부가적으로 사회계층과 부모에 대한 애착 및 비행행위간의 관계도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시내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중 교복을 입는 학교 6개교 328명, 자유복을 입는 학교 6개교 400명으로 총 728명이며 조사 방법은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 가장 많이 행하는 비행의 순위는 부모 및 선생님에 대한 반항, 킨닝, 음주, 음란 비데오 관람, 음화 및 음란서적 소지, 돈내기 도박, 다방이나 당구장 출입, 관람 불가 극장 출입, 술집 출입, 흡연 등으로 주로 공공질서 비행, 지위 비행, 피해자 없는 비행을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물 사용이나 재산 비행, 대인 비행 등은 거의 저지르고 있지 않다.

2. 현재 교복을 입는 학교와 자유복을 입는 학교간에 비행행동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3. 학생들이 교복보다는 자유복을 입고 비행 행동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는데 특히 음란 비데오 관람이나 술집출입, 다방이나 당구장 출입 등의 신분 노출을 꺼리는 경우에 자유복이 많았다.

4. 그러나 비행 행동을 한 학생과 하지 않은 학생들의 의복착용 상황을 보면 교복 보다는 자유복의 착용이 훨씬 많아 결국 등·하교시를 제외하고는 거의 자유복을 입고 행동하므로 교복을 입힘으로써 청소년 비행을 줄인다는 생각은 논리적으로 타당도가 적다.

5. 비행 행동과 애착간에는 부적인 관계가 있었다. 즉, 부모에 대한 애착이 강할 수록 그리고 학교에 대한 애착이 강할수록 비행은 적게 일어난다.

6. 비행 행동과 비행 하위문화 간에는 정적인 상관성이 높아 비행 하위문화를 수용 할수록 비행 행동이 많이 일어났다. 그러므로 청소년에 있어서 친구집단의 영향이 비행행동에 가장 크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로 본 연구의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본다.

즉, 청소년 비행과 교복 착용 여부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며 자녀에게 좋은 친구를 사귀도록 권장하고 자녀들이 부모와 학교에 애착을 갖도록 하는 것이 비행 행동을 줄이는 방안이라고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성차에 의한 비교가 되지 못했고 표집대상 선정에 다소의 무리가 있었으므로 본 연구 결과의 확대 해석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교복착용 부활이 청소년 비행행동을 줄인다고 생각되는 않는다. 그러나 옷차림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비행행동을 할 수 있는 조짐이라고 보는 낙인이론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생각할때 교복착용은 생활태도를 바르게 갖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청소년의 마음을 흩어지지 않도록 유도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곽대경, (1988), "청소년 비행의 통합 모델에 관한 고찰",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pp. 48-54.
- 노성형, (1988), "사회 계층과 청소년 비행 관계에 대한 경험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 양춘, (1984), 「청년 문제와 노인문제」, 서울: 정음사, 1984, pp. 76-101.
- 정충량, (1967), 이화 80년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pp. 77-78.
- Coleman, James S, (1974), Youth; Transition to Adulthood,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pp. 30-31.
- Elliot, D.S., Delinquency and thw school, Washington D. C., Youth Development and Delinquency Prevention Administration, p. 1
- Frazier, C.E., (1976), Theoretical Approaches to Devian- ce: An Evaluation, Charles E. Merrill Pub. Co., pp. 3-4
- Gurel, Lois M., Wublur, June C., Gurel, Lee, (1972), "Personality corleates of Adolescent clothing styles", *Journal of Home Economics* vol. 64, No. 3, March.
- Hirschi, T., (1969), "Causes of Delinquency", Univ. of Calif. Press, pp 16-26.
- Hollingshead, (1965), "Two Factor Index of Social Position", New Haver, Connecticut: Yale Univ.
- Johnson, (1982), "Social class and Delinquent Behavior", *Criminology* 18, pp. 86-93.
- Kelley, Eleanor A., Daigle, Carolin W., Lafleur, Rosetta S. and Wilson, Lendo Jo, (1974), "Adolescent Dress and Social Participation", *HERJ*. March, vol. 2, No. 3.
- Kaiser, Susan B.M (1985),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New York: Random House.
- Morganosky Michlle and Anna M. Creekmore, (1981), "Clothing Influence in Adolescent Leadership Roles", *HERJ*.
- Newitt, J.P., (1970), "Social Stratification and Deviant Behavior", New York: Random House.
- Reiss, A.J., (1951), "Delinquency as a Failure of Personal and Social Control", *American Sociologica Review*, vol. 16, p. 196.
- Sykes, G. and Matza, D., (1957), "Technique of Neutralization: A theory of Delinquency", *American Sociologica Review*, vol. 22, pp. 664-670.
- Tittle, C.R., (1983), "Social class and Criminal Behavior: A Critique of Theoretical Foundation", *Social Forous* 62. pp. 334-358.
- Toby, J, (1974), "The Socialization and Control of Deviant Behavior", cited by Glasser, (ed), *Handbook of Criminology*, Chicago: Rand McNally, pp. 85-100.